

## A Exploring various approaches to K-literature

With the focus on the text of Kim Chun-Soo's "*gottseuleuyhan seosi*"

Yoo, Hye-sun

Instructor, Soongsil University, Korea

bebehs0112@naver.com

### Abstract

**Objectives** This article is a study to show the possibility of 'K-literature' as a product of finding a universal and special aspect of Korean poetry. Based on this point,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which deals with his essence, was considered to contain elements unique to Korea at the same time as a cultural universal, so he tried to prove the possibility of 'K-literature' through this work, especially historically.

**Methods** It was analyzed in a new sens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way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which is an effort for true self-essence. This is to approach the meaning of one's existence value anew by looking at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with an awareness and critical position on reality at the time.

**Conclusions**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was mainly interpreted as a process of trying to find one's essence from an existentialist perspective. However,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interpret literature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K-literature' this article examined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rom this point of view,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a state that has lost its presence due to violence and an intellectual who tries to resist it, that is, the role of an intellectual to find the existence value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state in an absurd reality. In the end, Kim Chun-soo's poem *gottseuleuyhan seosi* can be seen as a cultural universality of self-essence, but it can also be seen as a cultural specificity that shows the concerns of Koreans at the time in relation to Korean history.

**Keywords** K-literature, Kim Chun-soo, poetry, *gottseuleuyhan seosi*, cultural particularity, cultural universality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0.312.003](https://doi.org/10.23159/IJKC.2023.10.312.003)

Received: Sep. 20, 2023 ; Reviewed: Oct. 10, 2023 ; Accepted: Oct.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K-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 모색

- 김춘수의 「꽃을 위한 序詩」를 중심으로-

유혜선

---

### 목 차

1. 서론
  2. 시 「꽃을 위한 序詩」 소개
  3. 시 「꽃을 위한 序詩」 분석
    - 3.1. 기존 관점
    - 3.2.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
  4. 결론 및 과제
- 

### 1. 서론

오늘날 지구화가 도래하면서 한류가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는 물론 이를 넘어 문학, 예술, 철학, 전통 민예 및 종교 등의 고급문화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sup>1</sup>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류를 문화 보편적이면서 특수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인류 보편적인 과제를 통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개인은 물론 집단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해석이 가미될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인간 세상사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서와 감정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 특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심지어 한국 사회 안에서 시대, 성별, 연령 등에 의해 다르게 해석할 여지

---

1 홍용희 (2016), 포스트 한류와 K-literature의 미학적 원형 탐색. 비평문학, 61, 265-268.

도 충분하므로,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산물임에 틀림없다.

한국 문학 작품 가운데 시는 리듬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K-pop과 이질적이지 않는 모습을 띠고 있다. 나아가 그 리듬과 내용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성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한국 시는 문화 보편적이면서 특수적인 면모를 보이는 문학작품의 결과물로서, 한류라는 흐름 속에서 'K-문학'<sup>2</sup>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한국의 문학 작품 중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춘수는 자신의 시를 통해 인류 보편적인 과제인 자기 본질에 대해 한국적 정서로 활발하게 논의한 대표적인 시인이기 때문이다.

## 2. 시 「꽃을 위한 序詩」 소개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지구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류의 중심이 대중문화에서 문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문화 보편적인 면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체적인 면도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본질이라는 가치를 찾는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는 인간이 스스로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와 맞물려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문학작품이다. 곧 문화 보편적이면서 특수적인 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存在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

2 'K-문학'은 세계 중심에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poet'이라는 신개념도 출현하였다(권성훈 (2022). K-poet의 미적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비평문학, 86, 30.). 한국의 시는 일정한 규칙적 리듬을 전제로 K-pop과 같이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시조를 K-문학으로 보는 논의도 있다. 김남규 (2021). 현대시조, K-문학으로서의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2.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無名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金이 될 것이다.

.....얼굴 가린 나의 신부여.

김춘수(1986), *김춘수 시 전집*, 서문당.

### 3. 시 「꽃을 위한 序詩」 분석

#### 3.1. 기존 관점

시 「꽃을 위한 序詩」는 너(꽃)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너’라는 꽃에 위협한 짐승인 ‘나’의 ‘손’이 닿으면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나’는 ‘너’(꽃)에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로 알 수 없는 어둠을 만든다. 그래서 ‘너’를 시인은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라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로 해석되며, ‘이름’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개별성의 부여의 의미로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립하게 하는 것이다.<sup>3</sup> 즉, 꽃인 ‘너’는 본질이 규명되지 않은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자이다. 그리하여 ‘너’(꽃)는 “무명의 어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 무명의 어둠 속에 있는 ‘너’(꽃)를 ‘나’는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혀” 올바로 바라봄으로

---

3 고경희 (1993). 김춘수 시의 언어기호학적 해석-〈꽃Ⅱ〉, 〈꽃〉, 〈꽃을 위한 序詩〉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국어국문학 전공, 60.

써 그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하룻밤을 울음”으로 지새우려 하고 있다.<sup>4</sup> 그 울음은 이내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고”, 마침내는 “돌에까지 스며들어” 그 돌이 “금으로” 바뀌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돌개바람’은 ‘탑’이라는 하나의 문명을 흔들고, 결국 탑의 근원인 ‘돌’에까지 도달하여 이름을 붙여 ‘금’으로 만들게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sup>5</sup> 사물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과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상징한다.<sup>6</sup> 그런데 이러한 돌개바람과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신부” 곧 ‘너’(꽃)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운” 채로 그려지고 있다. 얼굴을 가리운 ‘너’(꽃)의 정체는 시적 주체가 온전히 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 「꽃을 위한 序詩」는 ‘꽃’이라는 사물을 통하여 김춘수 자기 존재의 본질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상하였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시는 시적 주체가 꽃의 가치와 존재를 바로 읽고 옹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시인이 인식의 주체가 되어 꽃을 바르게 불러보려 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실존주의 개념은 시 「꽃」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시 「꽃」은 인식의 대상인 꽃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식되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꽃을 위한 序詩」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3.2.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

위의 작품 「꽃을 위한 序詩」는 시집 『꽃의 소묘』에 실린 작품이다. 제6시집인 이 시집은 1959년에 나왔으므로, 이 작품은 부정부패 속 한국사회 혼란기 중에 쓰인 작품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집명부터 꽃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이어서 사물 혹은 사물의 존재에 대한 가치 정립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실린 작품들의 시적 의의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시 「꽃을 위한 序詩」는 당시 부조리한 사회 현실 앞에서 존재로서 가치 정립을 하려고 하는 시인의 고뇌를 읊은 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 「꽃을 위한 序詩」는 4연, 6문장, 1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연에서 시인은 자신을 “위험한 짐승”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손이 너인 꽃에 닿으면 꽃은 “미지의 까마득한

4 남대극 (2009). 김춘수의 <꽃>과 <꽃을 위한 서시>, 숲과 문화, 18(5), 38.

5 박창민 (2010), 김춘수 시의 기호학적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국어국문학전공, 63.

6 남대극 (2009). 38.

7 남대극 (2009). 38.

어둠”이 되고,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시인인 ‘나’는 당대의 ‘지식인’으로 대표되므로 당시 사회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곧 분노로 가득 찬 ‘위험한 짐승’이라는 섬뜩하고 거친 이름으로 표현 될 수밖에 없다. 이 거친 짐승이 ‘손’을 사용하여 ‘너’인 ‘꽃’에 접근한다. 즉 ‘나’는 ‘너’와의 관계를 ‘손’을 통해 시도하고 있으며, 그 ‘손’이 ‘너’에게 닿았을 때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지식인’인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너’인 ‘꽃’에게 ‘손’을 뻗었는데, ‘너’가 ‘알 수 없는 세계로 변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나’와 ‘너’는 가까워질 수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비춰진다.<sup>8</sup>

그런데 여기서 ‘너’라는 ‘꽃’의 존재는 무엇일까. 제2연에서 “무명(無名)의 어둠” 속에 있는 너에게 나는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한밤내 운다”고 하고 있다. ‘무명’ 즉 ‘이름 없음’은 너를 부를 수 없음을 말한다. 곧 너를 부를 수 없음은 너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 가치가 없는 너를 위해 나는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혀 너를 알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 나는 계속 ‘우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에게 현재 존재감 없는 너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추억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추억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이므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sup>9</sup> 그래서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옛날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된 때를 불러와서 ‘불’과 같은 ‘밝음’을 펼쳐 보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를 호명하여 현재와 중첩시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김춘수의 중기시에서도 발견된다.<sup>10</sup>

이와 같이 나는 너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과거의 일을 불러 너로부터 존재를 찾도록 해 보지만 여전히 이름 없이 어둠 속에 있는 너로 인해 계속해서 울게 된다. ‘울음’은 김춘수 시에서 나타난 상실의 정조인 우울의 표출로,<sup>11</sup> 과거에 존재 가치가 있던 너가 현재 이름도 없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 상실의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내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알고 싶어 하는 존재인 ‘너’인 ‘꽃’은 ‘한국’ 즉 ‘국가’ 혹은 ‘나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방을 통해 다시 찾은

8 박창민 (2010). 61.

9 박창민 (2010). 61-62.

10 이성희 (2009). 김춘수 시의 우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8, 480.

11 이성희 (2009). 480.

나라가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정부패로 변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존재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밝혀질 수 없는 상태로 남겨진 것이다.

무명의 어둠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너로 인해 흘렸던 나의 울음은 제3연에서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고”, 마침내는 “돌에까지 스며”들어 그 돌이 “금”으로 바뀌게 한다. 2연에서 슬픔의 이미지만 표출하는 ‘울음’은 3연에서 ‘돌개바람’이 되어 하나의 완전한 사물인 ‘탑’을 흔들고 있다. 즉 슬픔만 표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해 극복하려는 힘을 가지게 되어 ‘탑’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개바람’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힘으로 인식되며, 그것으로 바꾸려는 대상인 ‘탑’을 흔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탑’은 ‘현재 한국사회, 나라, 국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돌개바람은 탑을 흔들다가 ‘돌’에 미친다고 했는데, ‘돌’은 탑의 질료로서 그 본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나라의 본질인 ‘국민, 민족,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밤내 나의 울음이 저항력을 가진 돌개바람으로 바뀌어 부조리한 사회(국가)를 흔들다 보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존재감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돌’은 ‘금’이 된다고 하고 있다.

‘금’은 2연에 나오는 ‘불’과 같이 빛이 나는 속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어둠에서 예전과 같은 밝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암시한다. 즉, 금은 밝음의 이미지로 존재 발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거나 감춰져 있는 것의 폭로를 표명한다.<sup>12</sup> 그래서 금이 된다는 것은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 국가의 본질인 국민에게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찾게 하여 이전의 밝음을 찾을 수 있는 세계로 탈바꿈함을 뜻한다. 이러한 나의 노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4연에서 “.....”라는 침묵이 흐르고 “얼굴을 가리운 신부”가 등장한다. ‘신부’는 여인으로 ‘꽃’으로 비유될 수 있으므로 ‘너’로 귀결된다. ‘꽃’인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를 의미하므로 약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신부’로 비유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신부’인 ‘너’가 얼굴을 가리운 것은 은폐된 모습을 벗어나거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4연에서 ‘.....’로 시작된 것은 나의 노력의 절망이 담겨져 있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시 「꽃을 위한 序詩」는 당시 지식인인 내가 국가라는 너의 존재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그것은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와 같은 확실한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12 고경희 (1993). 61.

#### 4. 결론 및 과제

여기에서 시 「꽃을 위한 序詩」는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국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당시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지식인인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나는 손을 뻗쳐 부조리한 현실 속의 사회(국가)인 너(꽃)에게 접근하였지만 더 알 수 없는 세계로 변화였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존재감이 있던 너의 모습을 각성시켰지만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서 나는 계속해서 슬픔의 감정을 표출한다. 그런데 나는 슬픔의 정서에만 그치지 않고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돌개바람이 된다. 돌개바람은 이내 부조리한 현실의 사회(국가)를 흔들고 그 본질적인 존재의 국민을 흔들고 있다. 국민을 각성시켜 존재감이 있던 이전의 국가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이전의 존재감 있던 국가로 바꾸기에 현재 국가는 신부라고 표현될 만큼 약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은폐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가의 약한 존재 모습을 보여주는 신부라는 호칭을 부르기 전에 한참 침묵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 「꽃을 위한 序詩」는 역사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폭력으로 인해 존재감을 잃은 국가와 이에 저항하려는 지식인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당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 「꽃을 위한 序詩」는 반역사주의, 반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존재 가치를 찾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 「꽃을 위한 序詩」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의 국가 뿐 아니라 그 본질인 국민의 존재 가치를 찾고자 하는 지식인의 역할이다. 그런데 김춘수의 시세계가 역사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여기에서 다른 역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기면서, 다양한 접근방식에서 김춘수의 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접근방식은 K-문학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 보편적이면서도 문화 특수적인 면모를 취하는 입장으로, 여러 문학 장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사려된다.

## **[References]**

- Kwon, Sung-hun (2022). Aesthetic Aspects of K-poet And Its Literary Meaning. *Literary criticism*, 86, 29-51.
- Kim, Nam-Kyu (2021). Modern Sijo, Possibility as a K-literatur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2, 45-76.
- Lee, Sung-hee (2009). Study on melancholy of Kim, Chunsu's poetry. *Th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8, 457-486.
- Hong, Young-hee (2016). Investigation on Post Korean Wave and K-literature's Aesthetic archetype, *Literary criticism*, 61, 265-287.

## K-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 모색 - 김춘수의 「꽃을 위한 序詩」를 중심으로

유혜선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강사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은 한국 시가 문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는 산물로서 'K-문학'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은 인류 보편적인 과제를 통해 개인집단의 특수성을 선보인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자기 본질을 다룬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는 문화 보편적인 동시에 한국만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아, 이 작품을 통한 새로운 방법, 특히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K-문학'의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에 대한 기존의 관점인 진정한 자기 본질을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의미로 분석해 보았다. 이는 곧 당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인 입장으로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결론**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는 주로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의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K-문학'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문학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은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를 역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는 폭력으로 인해 존재감을 잃은 국가와 이에 저항하려는 지식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즉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 본질인 국민의 존재 가치를 찾고자 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결국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序詩」는 자기 본질이라는 문화 보편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인의 고민을 보여주는 문화 특수성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핵심어** K-문학, 김춘수, 시, 「꽃을 위한 序詩」, 문화 보편성, 문화 특수성

이 논문은 2023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